

레슬리 알렌 박사, 애가, 세션 4,

애가 1: 12-22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4부 애가 1:12-22입니다.

이제 애가 1장의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애도의 배경과 애도의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도는 반복적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통해 애도자가 상실을 견디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천천히 배울 수 있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자아는 점차 상실의 현실에 적응하게 됩니다.

나는 애도에서 세 가지 경로나 세 가지 궤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반응을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슬픔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전체 과정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슬픔은 상실의 인식, 상실의 기억, 인식으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슬픔은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도 제1장의 멘토는 상실의 측면을 겪어 공동체가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대처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에 대한 인정, 책임에 대한 인정도 있습니다. 죄책감은 슬픔 속에서 다루기 어려운 일이며, 슬픔 상담사는 죄책감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 경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자기 비난, 즉 자동적인 자기 비난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같이 밥을 먹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으면 집에 있는 사람은 '아, 조금만 더 놔뒀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고, 그러면 그들은 더 오래 머물렀을 것이고, 물론 그것은 잘못된 자책이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상담사는 종종 이에 대해 경고합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비합리적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나 어떤 경우 에는 그것이 합리적이다. 자원봉사 병원 원목으로 일하는 한 여성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왔고 다음 주에 수술을 받고 사전에 몇 가지 검사를 받았지만 그녀는 수술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그녀는 마음속에 슬픔을 안고 있었고, 나이는 6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지역 의회에서 위탁모로 일했지만, 장난꾸러기 어린 소년이 그녀를 때렸고, 그 소년은 그녀를 사회 복지사에게 신고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것이 의회 방침을 위반 한 것이며 이제부터 더 이상 위탁모가 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죄책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었지만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선고가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고 너무 속상해서 더 이상 양육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나는 그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고민을 들어보고자 병원에갔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수술대에서 죽었고 더 이상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망 원인은 사실 그녀가 양육할 기회를 놓쳐서 상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합이 있었습니다. 애도, 슬픔, 죄의식, 고충을 받아들이고 죄책감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일종의 혼합이 이루어지며 때로는 죄책감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전통을 적용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공동체가 경험한 것 사이에 어느 정도 유사점을 찾는 애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죄책감은 책임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며 슬픔의 경우에는 자주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유용한 유사점 중 하나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문제 및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 훌륭한 조직은 책임감을 갖는 데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들은 오해를 받고 잘못 적용될 경우를 대비해 죄책감을 결코 사용하지 않지만, 책임을 지는 것은 냉정한 삶으로 돌아가는 길의 핵심 요소이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슬픔, 죄책감, 그리고 불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난을 받아야 하며 슬픔에는 정당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한 아이가 사망했는데, 그날 밤 텔레비전 뉴스에서 부모들이 자수하라, 뺑소니 운전자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린 딸을 위한 정의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불만은 정의를 구하는 탄원이며, 애도하는 경우에는 유다 측뿐 아니라 적 측에서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 이 궤적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애가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애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슬픔을 겪은 후에야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의 감정적 유대를 끊고 다른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우리는 애가 1장 후반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내용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처음 다섯 절은 별도의 절이고, 두 번째 다섯 절은 연이 됩니다. 따라서 12절부터 16절은 17절, 그 다음에는 18절부터 22절이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9절과 11절 끝부분에서 우리의 멘토인 주화자에 의해 방해를 받은 시온은 이제 긴 말을 할 수 있게 되지만 그녀는 17절에서 중단됩니다., 그리고 멘토는 그 한 연만 인계 받고 다시 말하기로 돌아갑니다. 시온은 18-22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12~16이 장르가 무엇인지, 말하고 쓰는 방식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장례식 애도다. 그리고 시온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온은 9절과 11절의 끝에서 기도로 나뉘지만, 시온에도 장례 애도가 필요합니다. 슬픔의 인간적인 측면을 통과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매우 깊은 방식으로 느끼는 세속적 애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시온이 회중의 역할 모델로 기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할 때 회중은 이것이 우리가 차례로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감각한 충격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을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의 공포, 즉 586년의 끔찍한 재앙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끔찍해서 독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온은 그것을 독특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보자.

이것은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나는 애가가 기본적으로 기념 예배의 대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성전 경내에서, 폐허가 된 성전 경내에서 큰 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멘토가 말을 했는데 이제는 여자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죠? 글썄요,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전문적인 여성 조문객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이 예배 드라마에서 이 특별한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집단에서 데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하면 회중은 그것을 듣고 받아들여 이것이 우리를 위한 전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듣고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12절 전반부에서 시온은 자신의 고난이 독특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도시와 그녀 앞에 있는 그곳의 회중을 대표합니다. 지나가는 너희들아 너희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냐 나의 근심과 같은 근심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이것은 구약에서 폐허가 된 도시에 대해 여러 번 등장하고 폐허가 된 도시에 반응하는 시나리오의 한 장면을 선택합니다. 종종 여행자들은 이전에 알고 있었고 아마도 들르곤 했던 도시를 지나가곤 했지만 이제는 그 도시가 파괴되었고 적들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은 지금은 버려진 도시인 이 끔찍한 광경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곤 했습니다.. 구약성서는 여러 번 이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19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이 성을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이 광경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재앙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온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독특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는 슬픔에 너무 압도되어 그것이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폐허가 된 도시에 대한 이 시나리오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고, 끔찍한 사고가 나고, 차들이 멈춰서 쳐다본다. 그들은 브레이크를 걸거나 천천히 가서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는 그들을 위해 고안된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Lookie-loos. 그들은 외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돕기 위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호기심과 공포 때문에 멈추는 것뿐입니다.

글쎄, 그것은 여기 이 상황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며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호소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12절 끝부분에서는 이 슬픔을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내리신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멘토가 이 장의 앞부분에서 이미 적용한 신학적 해석을 지지합니다. 사실 5절에는 주님께서 그녀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단어는 현재 새로운 RSV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하므로 동일한 단어가 선택되고 있습니다.

멘토가 사용한 실제 언어에 대한 보증이 있습니다. NIV는 독자가 5절을 생각하도록 두 경우 모두 동일한 번역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 유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애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지만 마지막으로 등장하지 않는 신학적 모티브입니다. 포로 이전 선지자들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북왕국이나 남왕국을 공격하실 끔찍한 때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아아,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여! 왜 주님의 날을 원하십니까?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마치 사자를 피하다가 꿈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의 날은 어둠도 아니고 빛도 없고 밝음도 없는 흑암도 아닙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것을 남쪽 왕국에 적용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스바냐서에서 진노, 분노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니라. 그리고 포로 이전의 그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날인 남쪽 왕국의 멸망에 적용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느니라(스바냐 2:14-16)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급히 가까웠느니라. 그날은 진노의 날, 환난, 고통의 날 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말하는 것은 시온이 스스로 멘토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주의 날에 관하여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은 13절에서 확장됩니다. 그분께서 위에서 불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내 뼈 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 재난에 책임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 일련의 언급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간 재난 뒤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불을 말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불태운 불, 즉 바벨론 사람들이 제국의 권위에 반역한 데 대한 형벌로 피운 불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신성한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서 불을 보냈습니다.

높은 곳에서 오는 불은 무엇입니까? 번개야, 번개야. 그것은 마치 번개가 예루살렘을 강타하고 역사적으로 바빌로니아인들이 불을 붙였던 불의 힘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온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쳐 내 뺏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뼈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열병, 고열, 고온을 뜻하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초래하는 고통, 이 재앙이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 아래에는 역사적 수준이 있지만 신학적인 수준도 있고 심리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마치 지독한 열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사냥 비유로 넘어갑니다. 그분은 내 발 앞에 그물을 깔아 주셨고, 나를 뒤로 물러가게 하셔서, 나를 온종일 기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재앙이요, 참담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14절은 멍에에 대해 말합니다. 이 모든 경험은 시온을 짓누르는 끔찍한 멍에였습니다.

내 범법은 멍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그들은 서로 고정되었습니다. 그것들이 내 목을 짓누르며 내 힘을 약하게 합니다.

그것은 범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미 5절에서 멘토의 입술에서 그녀의 수많은 범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반역적인 방식, 반역적인 행위임을 보았습니다. 이 반역에 대한 형벌이 있으며, 이 반역 행위를 나뭇가지, 나무 조각으로 엮어서 멍에, 무거운 멍에로 삼아 시온을 약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며, 시온 자체의 범법이나 반역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멍에에 대한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적들의 편을 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나를 넘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역사적 상황과 신학적인 상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인간 상황 속에 거기에는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편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벨론이 시온을 정복할 때 섭리적인 역할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인 뜻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주님은 적군의 편에 서서 유대 군인들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들을 버리셨도다 그가 나를 대적하여 내 젊은이들을 쳐부술 때를 선포하였느니라.

시간, 히브리어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 버전이 군대의 맥락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군대를 소집하시되 나를 치려고 군대를 부르사 나의 청년들을 멸하려 하심이로다 그렇다면 원수의 편에 계신 하나님,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 주님께서서는 처녀 딸 유다를 포도주틀에 짓밟으셨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은유입니다. 포도를 붉은 주스에 밟아 포도주로 바꾸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의 목욕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제3 이사야에 의해 선택됩니다. 이사야 63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는 이 피의 목욕을 아주 길게 묘사합니다. 이 표현은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14장과 19장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피의 목욕으로 형벌하시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처녀 딸 유다. 우리에게는 전에도 딸 시온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딸 유다를 얻습니다. 지난번에 딸이 여성의 의인화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처녀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으며,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에게서는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무패를 의미하며, 아모스 5장 2절에서는 북왕국 백성을 가리켜 사용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에서는 남왕국 백성을 가리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은 다시 개인으로 돌아옵니다. 고통.

그것은 재난과 그 신학적 원인에서 고난으로 옮겨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울며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나니 위로하는 이가 내게서 멀리 계시고 내 용기를

소성케 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리고 이것이 시온이 12 절에서 나의 슬픔, 나의 독특한 슬픔을 말하면서 시작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녀는 개인적인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편안함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멘토가 1장에서 앞서 강조한 것인데 이제 그녀는 편안함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위로자가 용기를 북돋우거나 사기를 회복시켜준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저는 혼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장의 핵심 단어인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도시가 얼마나 외로운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이기었기 때문에 내 아이들은 황폐해졌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은 물론 예루살렘 시민들인데 여기서도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 회중을 언급하는데 그들이 황폐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적은 9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우리는 고통과 인간적 슬픔의 표현을 얻습니다. 더 이상 신학적 해석, 합리적 해석이 없고 감정적 폭발이 있습니다. 물론 슬픔에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12절에서 그것을 얻었고, 16절에서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6절에서 이러한 감정적인 슬픔의 표현은 13절과 15절에 있는 재난의 신학적 중요성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13절에서 15절의 내부 틀은 1장 전반부에서 멘토의 설명을 지지합니다. 물론 그 힌트는 시온이 말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힌트는 회중도 이를 지지해야 하며, 시온은 회중의 역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님의 날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메모가 추가되었습니다. 신학적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관계에서 크게 벗어났을 때 받게 될 형벌 목록인 신명기 28장에 대한 인용과 암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멘토는 이 끔찍한 재앙에 대한 설명으로 그것을 율법, 즉 모세 율법의 해석으로 골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온은 스스로 공헌을 했고 이제 선지자들에게로 향합니다. 이 주님의 날 모티브는 포로 이전 선지자가 말했듯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끔찍한 일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멘토가 신명기 28장인 토라에 호소한 반면, 시온은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신학적 의미를 찾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선지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는 애도 과정에서 의미를 찾고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해야 하는 요소이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재난에서 배울 수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다음 17절에서는 처음에 말했듯이 멘토가 잠시 인계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18절부터 22절까지 시온에게 더 많은 말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의 대본으로 보면, 예배극에서 주강사는 시온에게 계속할 수 있을 때까지 울 시간을 조금 줍니다. 그는 17절에서 이 다음 연을 거쳐 시온이 스스로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단에서 약간의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멘토가 주는 의도적인 방해입니다. 예배의 맥락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멘토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그는 시온이 손을 뻗었지만 그녀를 위로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온이 말한 것에 대해 일종의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시온은 “네게 아무 상관이 없느냐 네가 지나가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를 지나가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저에게 약간의 연민을 보여주시고 잠시 멈춰서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그리고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6절 때문에 위로하는 이가 나에게서 멀리 계십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고, 시온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의 첫 번째 줄에는 12절과 16절을 결합한 간략한 요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온 이 말해야 했던 것의 핵심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신학적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다음 부분에 요약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이웃이 그의 원수가 되도록 명하셨다. 물론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다. 여러분은 족장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경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둘 다 그 나라에 적용되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는 유다만이 그 언약 나라를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녀는 유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멘토가 말하려는 것은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수단으로 국제 전쟁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온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여 이 주의 날을 묵상하고 요약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이웃이 그의 원수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포로 이전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의 결과는 바로 이웃이 그의 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빌론은 이웃이 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 바빌론이 각 지방에서 파견된 국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유다 편에 섰으나 이제는 바빌론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군대를 보내도록 강요받고 있는 국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7절 끝에는 예루살렘이 그들 가운데서 더러운 것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뭐야 이 더러운 것? 한 학자는 구약성서에서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언급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체를 멀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더럽혀지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온은 외면당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위로가 부족함을 다시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 유다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이것은 편안함이 부족하다는 맥락에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온은 다시 연설합니다. 드라마 전례에서 그녀는 이제 연설을 재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바탕 울었고 16절에 발표되었으며 이제 그녀는 다시 이어받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18~22번이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8~22에는 무슨 일이? 글썄요, 궤적이나 경로 측면에서 보면 슬픔, 죄책감, 불만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18~22까지 모두 섞여있습니다.

이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슬픔 과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생각나는 대로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서로 다른 것들을 모아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슬픔의 진행에 따라 세 가지 궤적이 모두 18~22에 표시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장르적으로는 장례 애도의 조합으로 18~20이 대부분이지만 21~22에는 기도 애도도 있다.

물론 우리는 장례식 애도를 발견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의 첫 번째 부분은 모두 장례 애도였지만, 1장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더 이상 순전히 세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혼합체이지만 해석에 관한 한 신성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요소는 사실상 장례 애도가 기도 애도로 바뀔 수 있도록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기 18~22장에서 그러합니다. 20, 거기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8장의 첫 번째 줄에는 이 재난에 부과된 의미를 의미하는 해석이 있고, 나머지 18절과 19절에서는 손실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20절의 처음 두 부분에는 감정의 폭발이 있습니다. 20절 끝부분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20절의 결론은 더 큰 상실을 묘사하고 다시 슬픔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매우 혼합된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것이 한 측면에서 다른 측면, 또 다른 측면으로 점프하는 것을 매우 자주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슬픔에 대한 이 설명이 처리되는 것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 말씀을 거역하였도다 하느니라 물론 주님은

웁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틀렸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매우 고백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백에서 시온은 재난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앞으로 나오도록 격려받은 사람이 '나는 John이고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말하거나 그녀가 '나는 Jane입니다. 그것이 알코올 중독자 고백의 첫 번째 단계이고, 알코올 중독자 익명 협회(Alcoholics Anonymous)가 그토록 유명한 전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재검토입니다. 이제 그 이전, 특히 12~15년에 시온의 입술에, 몰락에 있어서 야훼 편에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야훼는 섭리적으로 바빌로니아 사람들 뒤에 있었고, 이 점에서 유다나 예루살렘이 범법과 반역적인 방식으로 짊어진 책임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아주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2절, 14절에서 나의 범법이 멍에에 메어 반역의 행위로 얹매었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재난에 대해 고백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법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것과 동의어이며, 3장과 42절에 이르면 반역의 두 동사가 나란히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나의 반역적인 길, 나의 범법의 배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을 보면 그것이 멘토가 말한 5절의 메아리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 여자의 허물과 반역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난하게 하셨다.” 그래서 14절은 5절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의 시작과 끝 부분에 신명기 28장의 메아리가 있었고 멘토는 토라에 호소하여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5절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8절에서 내가 그의 말씀을 거역하였다고 할 때, 아마도 시온은 멘토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호와와 날일 뿐만 아니라, 시온의 형벌을 뒷받침하는 예언적 현상 배경일 뿐만 아니라, 토라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율법과 선지자가 모두 일치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신명기 28장도 관련되어 있다는 멘토를 언급하고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8장의 두 번째 부분에는 세계 각국에 대한 공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모든 백성이 여기 있나니 나의 고난을 보라 나의 청년들과 나의 젊은 여자들과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느니라

이제 이것은 매혹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 생활은 멘토가 말한 5절에서 일어났고 우리는 거기서 그것이 신명기 28장 과 41절의 인용문이었고 다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신명기 28장을 인용하고 신명기의 그 장에서 그러한 저주 중 하나인 신성한 저주가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애가가 일어난 일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 해석을 매우 장려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재앙에 밑줄을 긋고 의미를 부여하는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유배자들의 상실, 그 가족과 나의 청년들과 나의 아가씨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6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은 뒤에 남겨진 자들이었지만 여기서 청년 남녀들은 수 마일을 메소포타미아로 끌려간 유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가족 두 사람 모두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9년에는 추가 손실이 언급됩니다. 나는 내 연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습니다. 이제 시온이 기념하는 것은 다양한 인간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가장 좁은 의미의 슬픔을 갖게 됩니다. 연인들은 1장 2절에서 멘토의 입으로 말하면 그들은 동맹자, 지역적 동맹자, 지역적 국가적 동맹자입니다. 나는 내 연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돕지 아니하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벨론 편으로 가서 더 이상 나를 돕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27장의 회의는 모두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에 맞서 단결하겠다는 팔레스타인 국가들의 단합된 결정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내 연인들이 나를 속였습니다. 여기서 NIV는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제로 연인 대신 동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인적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의 힘을 되살리기 위해 음식을 구하다가 도시에서 죽었습니다. 18개월 동안의 포위 기간 동안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는데, 그중에는 시온의 육적 지도자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시민 지도자들,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겪었던 일련의 인적 손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녀는 자신이 시작했던 기도 호소로 돌아가서 9절 끝과 11절 끝에서 멘토의 말을 끊습니다. 이제 그녀는 기도로 이 호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온을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모든 자연의 조력자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 조력자들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동정을 호소하며 시온의 편을 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보십시오. 배가 출렁거린다. 내 마음은 내 안에서 비틀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이 종종 발생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은 하나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시온은 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우 반항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18절에서 사용한 단어를 집어들었고 나는 그것에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큰 손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New RSV에서는 거리에서 칼이 베었다고 말합니다. 집에서는 죽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NIV가 더 좋고 번역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밖에는 칼이 베고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하는 것은 포위 당시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바벨론의 칼에 목숨을 잃은 유대 군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도시 내부는 죽음과도 같은, 사실상의 죽음과도 같았다. 시편에서는 죽음이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하고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비유로 여러 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끔찍한 포위 공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받아들입니다. 시작 대신에 그들은 내가 어떻게 신음하는지 들었습니다.

나는 다른 번역판, 즉 하나님께 대한 명령적인 말씀으로 번역된 다른 현대 번역판을 선호합니다. 여기, 제가 어떻게 신음하고 있는지, 그것은 고대 역본 중 하나인 시리아어 역본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21절의 통일성을 이루는데, 그것은 모두 사람이 기대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준 텍스트에는 선행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해 주는 사람 없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만이 생깁니다.

내 원수들은 모두 내 고난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해낸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시온의 멸망에 울부짖는 다른 사람들의 분노도 있습니다.

당신이 공표한 날을 가져오시고 그들도 나와 같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액자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2절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날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날의 또 다른 형태인 그날로 돌아갑니다.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주의 날은 매우 복잡한 표현 방식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는 1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할 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재난의 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포로 생활 전 예언에서 이 다른 측면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주의 날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에 대한 형벌의 날이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결산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온은 호소합니다.

나는 내 경험에서 주님의 날의 한 측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며 그들은 해야 할 것보다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보다 더 멀리 나아갔습니까? 22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행을 주의 앞에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 때문에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갚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죄가 있고 그들도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향한 외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그 불만의 해결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어 내가 고통받는 만큼 그들도 고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에 대한 예언적 선례가 있으며 이사야 10장의 매우 강력한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앗수르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이고 유다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긴 기사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기사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앗수르가 내 권한을 넘어 유다를 벌하려고 의도한 것보다 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앗수르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에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고통을 당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사이에 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대한 이 두 부분의 모티프를 사용하는 데에서도 매우 유사한 내용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시온은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였으므로 다른 나라들의 귀환도 있어야 하며, 여호와의 날의 또 다른 측면에서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온은 자신의 고통에 호소합니다. 내 신음소리가 많고 내 마음이 약합니다. 이것은 20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여,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받는지 보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정의, 온전한 정의는 오직 그런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2장 전체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을 위해 2장을 미리 읽고 공부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4부 애가 1:12-22입니다.